



# “은행서 잠자는 예산이 593억” “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구호뿐”

## 예산절감 불용액 과다 지적 쏟아져

18일 열린 대구시의회 2차 예결특위(위원장 정규용)의 '2002년 대구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' 총괄부문 심사에서는 예산절감 및 불용액 과다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됐다.

첫 질의에 나선 김의식(서구1) 의원은 “시민불편사항은 늘려있는데도 지역개발사업비 5억원이 결산 추경에서 4억 원이나 감액되고 나머지 1억 원 중에서도 1천만 원만 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”고 지적하면서 집행부를 향해 “좀 더 챙기라”고 말했다.

김 의원은 이어 “경기부양책과 물가상승 등으로 해마다 지출이 늘

고 있지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”면서 “민간단체와 연구소 등 기관별로 업무가 중복되거나 실적도 없이 유지되는 곳을 과감하게 통폐합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”고 말했다.

권기일(동구2) 의원은 “집행잔액이 593억8천600만원에 이른다”는 것은 세부계획이 그만큼 미흡했다는 것을 뜻한다”며 “예산이 은행에서 잠들지 않도록 하라”고 촉구했다.

권 의원은 또 “대형유통점이 신축 후 보전등기를 하지 않아 19억원에 이르는 등록세를 거둘 수 없었다”는 데 어떻게 처리됐느냐”고 물었다.

박부희(달서구3) 의원은 “전문위

원 검토보고서에 초과징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나”고 물었다.

이경호 의원은 “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경제개발비(5천50억7천400만원)의 총이월액(529억2천700만원)이 총이월액의 49.1%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을 보면 구호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느낌”이라고 질책했다.

불용액 3건이 △고마고속도로(성서 IC~남대구IC) 건설 20억원 △명곡택지~본리택지간 도로건설 20억원 △달성산업단지 우회도로 건설 10억원 등인 점에 대해 이 의원은 “지역기업의 60~70%가 집중돼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경제개발비가 불용처리된 것은 경제살리기가 헛구호가 아니고 뭐냐”고 따졌다.

이 의원은 또 “최근 남구청이 서부

정류장을 유통단지로 개발한다는 데 대구시와 대책을 협의한 것이냐”고 물었다. 그는 또 “EXCO확장시 식음료권을 인터불고호텔에 준 것이 맞느냐”고 물었다.

이에 문영수 정무부시장은 “경제개발부문 불용액이 많은 것은 도로 등 SOC예산이어서 사업성격상 불용이 많다”고 답하는 한편 “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에 맞고 대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기업이라면 무상임대 계획도 있다”고 말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 의지를 나타냈다.

문 부시장은 이어 EXCO확장시 식음료권과 관련해 “알리안스와도 했다”고 답해 이 의원으로부터 이중계약 의혹을 받기도 했다.

문정화기자 moonjh@idaegu.com